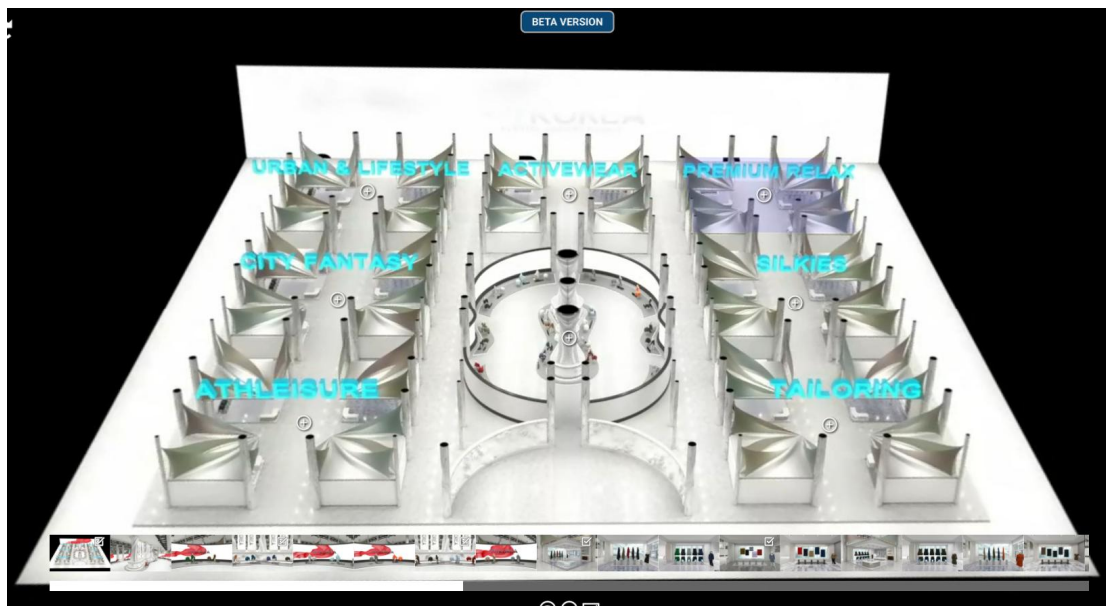


섬유 온라인 상설 전시관 개관

“

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 상황하에서 국내 섬유 업계의 비대면·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9월 3일자로 국내 최초로 3차원(3D), 가상현실(VR)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섬유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개관하였다.

- 지난 6월부터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주도로 진행된 섬유 온라인 상설 전시관은 문서와 사진 등 기존 전시에서 벗어나, 3차원의 360도 회전 영상 제공이 가능함.
- URL : www.ktextile.net/virtual-exhibition



[섬유 온라인 상설 전시관 화면 예시]

- 섬유산업은 코로나 여파로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고용 악화, 업황 부진 및 수출 물량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, 제조업 중에서 첫 번째로 개관하는 섬유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통해 섬유업계는 온라인상에서 해외 전시 마케팅을 365일 24시간 지속할 수 있음.

◆ 시 행 일 : 2020년 9월 3일부터

- 방문객이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하여 관람을 즐기는 것처럼 해외 구매자는 직접 원단을 눈으로 보거나,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색상, 광택, 표면질감, 유연성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음.
- 섬유 온라인 상설 전시관은 데이터 크기가 작은 일반 이미지관도 별도로 구성하여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국가의 해외 구매자도 빠른 응답 속도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음.
- 또한 섬유 온라인 전시관은 국내 기업간(B2B) 수출 기반인 바이코리아와 연동이 되어 365일 온라인 화상상담, 전자결제, 제품 주문이 가능함.
- 현재 섬유 온라인 상설 전시관에는 직물업체 28개사 280개 상품이 입점하였고, 12월 말까지 51개사 1,020개 상품까지 확대·입점할 예정임.
- 협단체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섬유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품별 거래실적, 상담 건수 등 추가 기능을 보완할 예정임.
- 섬유 전시관을 시작으로 연내에 전자, 지능형 가전가구, 바이오헬스, 화학, 기계, 로봇, 신재생에너지, 조선, 자동차 등 10대 업종별로 차별화된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순차적 개관할 계획임.
-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기준의 시대에 새로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고 우리의 정보기술(IT) 강점을 활용한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해,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비대면·온라인 수출지원 대책」을 마련하고 있음.
-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지원사업과 법·제도를 비대면·온라인까지 확장하여 내수 확보와 수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바이코리아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능을 전면 개편하여 전시 마케팅, 화상 상담, 계약, 결제, 통관, 해외 물류 등 수출 전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한꺼번에 가능하게 하고, 국내외 기업간(B2B) 및 기업-소비자간(B2C) 기반과 아마존 등 국제 기반을 연계하여 그간 오프라인 수출에 익숙해 온 중소기업도 온라인 수출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임.